

베트남 의학형성의 궤적

眞柳 誠

한국어 번역:조정은

서론

이전에는 베트남 고유의 醫藥學을 南醫・南藥이라 하고, 中國醫藥學이나 베트남화 된 것을 北醫・北藥이라 하였다. 이 둘을 합하여 東醫漢喃이라 하였는데, 1945년 독립한 후부터는 東醫學이라 칭하였고 현재는 慧靜古傳醫科大學 (Tue Tinh Traditional Medicine College) 과 6醫科大學의 東醫學部에서 전문적인 의사가 6년제 학제로 육성되어, 임상치료를 하고 있다. 1961년에는 東醫研究院과 東醫學會도 설립되었다. 베트남의 醫學文獻과 史料는 고온 다습한 기후와 전쟁으로 인해 소실된 것이 많으나, 後黎朝時代까지의 자취를 선행연구[1][2][3] 및 眞柳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설하고자 한다.

1 베트남 역사와 의학사 사료

베트남 북부는 기원전 2세기 漢朝의 통치 이래, 6세기만 제외하고 10세기까지 중국의 통치가 이어져왔다. 때문에 한자가 널리 사용되고, 과거제도도 독립 후인 11세기부터 20세기 초엽까지 채용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초기의 明朝 통치 및 독립전쟁으로 인해 古籍이 대부분 유실되어, 현존하는 것은 15세기 이후의 寫本이나 刊本 정도이다.

또한 李朝 (1009~1225) 부터 後黎朝 (1428~1789) 까지 수도인 昇龍 (현재의 하노이:Hanoi) 에 있었던 國子監의 藏書는, 阮朝 (1802~1945) 가 수도로 삼았던 順化 (현재의 후에: Hue) 로 옮겨졌다. 이러한 장서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4].

결국 베트남 의서는, 현재 존재하는 책으로는 후술할 14세기 이후 성립된 책만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11세기의 독립 왕조 시대부터는 太醫院의 御醫가 비싼 北藥 (中國藥) 을 사용해 왕이나 관료의 건강을 관리해왔다. 민간에서는 藥師 (村醫) 가 있어, 베트남산으로 싸지만 효과가 높은 南藥으로 서민을 치료하고 있었다. 藥師는 이러한 치

료경험을 기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祕傳」이라 하여 널리 유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흩어져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陳朝 (1225~1413) 말기인 14세기부터 서적을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나, 20세기 중엽까지 대부분이 정부 편찬물로서 국가가 출판한 것으로, 개인출판이나 상업출판은 많지 않았다. 醫書 출판은 寺院 등에서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실제 존재하는 것은 소수이다. 醫書의 상업출판도 많지 않아, 현재 존재하는 책은 대부분이 19세기 이후의 인쇄물이다.

또한 의학사 사료의 대부분이 비전이라 여겨져 필사본으로 전승되어 왔다. 더욱이 베트남 전역에 남아있는 古醫書 소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책은 하노이의 漢喃Han Nom研究所등에 소장되어 있는 약 400書目・600건 정도만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써의 베트남 의학사는 陳朝 이전 시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2 陳朝時代 (1225~1413) 의 醫書와 慧靖

현존하는 베트남 最古의 의서는, 陳朝時代의 朱文安(Chu Van An:1292~1370) [5]이 편찬한『醫學要解集註遺篇』라 여겨진다.

이 책은『內經』을 기본으로 하여 각 질병의 病因과 病理를 분석해, 진단과 치료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朱文安은 外感病의 熱證과 寒證을 치료하기 위해, 새롭게 黨扣湯과 故原湯이라는 두 가지 처방을 창설하였다.

陳代를 대표하는 醫家は 惠靖 (Hue Tinh) 으로, 본명은 阮伯靖 (Nguyen Ba Tinh) , 후에는 慧靖 (Tue Tinh, 慧靜은 오자) 라 불리었다. 1374年 45세로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仕官하지 않고, 春場府 膠水縣에 있는 護舍寺에서 修行을 하면서 醫業에 몸담았던 듯 하다. 그는 1385년에 明에 파견되어, 施藥을 위해 그곳에 남기로 하였고 결국 명나라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즉, 慧靖의 醫書는 1385년 이전의 저술이라 할 수 있다 [6].

1717년에 黎朝의 侍內府가 慧靖의 저술이라 하여 편찬, 발행한 『洪義覺斯醫書』 2卷은, 상권에는 『南藥國語賦』『直解指南藥性賦』, 하권에는 『十三方加減』『傷寒三十七槌』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十三方加減』은 元나라 徐和用의 『加減十三方』 (1413初版)

을, 『傷寒三十七槌』은 明나라 陶華의 『傷寒六書』(1522初版) 중 『[傷寒家祕] 殺車槌法』을 기초로 하여 지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이 저서는 慧靖의 저서를 빙자한 16~18세기의 것임이 틀림없다.

『南藥國語賦』은 베트남에서 상용되는 南藥의 한자 이름·베트남 이름·효능을 24韻賦를 사용하여 베트남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역시 후세에 고치거나 덧붙인 것이 있으나, 古體의 喃字이나 漢字도 보이므로, 원본은 慧靖의 저작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直解指南藥性賦』은 治法으로는 280藥味를 한문의 歌賦으로 列記하고 있으나, 첫머리에 「欲惠生民, 先尋聖藥, 天書越定南邦, 土產有殊北國」라고 하여, 北國(중국)과는 다른 南邦(베트남)의 南藥을 강조하였다.

또한, 끝부분에서는 「集諸方良藥, 大垂佛手濟民, 斯不負南天廣惠」라고 하여, 첫머리에서와 같이 「惠」라는 단어가 보이므로 惠靖 즉 慧靖의 저작이라고 생각된다. 『南藥國語賦』와 『直解指南藥性賦』 두 책에서 사용된 歌賦 형식과 내용은 이후 베트남 醫藥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慧靖은 『南藥神效』이라는 책도 저술하였다. 현재는 首卷과 卷1~3만이 확인되고 있으나 목록을 보면 首卷의 本草와 卷1 諸中科(中風)~卷10 外科까지 全11卷의 醫學全書임을 확인할 수 있다. 首卷의 「藥品南名氣味正治歌括」(圖1)에는 原草部 62種·藤草 17種~人 6種과 함께, 한자 이름·베트남 식 이름(喃字)·氣味·藥性·加工 등이 각각 줄을 맞추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本草綱目』(1596初版)과 같은 것이므로, 후세에 여러 차례 개편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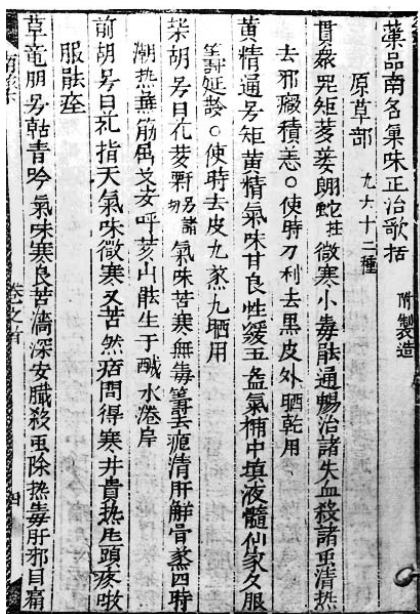


圖1 『南藥神效』首卷

거나 보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卷1~3의 경우에는 전체내용이 일부의 베트남 문자와 한문의 혼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南藥의 간편한 처방이 많아 중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璠輝注의 『歷朝憲章類誌』에 慧靖의 저술로써 이 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책은 慧靖의 原本에서 유래한 것일 것이다.

慧靖이 제창한 「南藥은 베트남인을 치료한 다」라고 하는 주장 및 藥效 등을 歌賦 형식으로 기록한 것 등은 이후 베트남 의학에 큰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3 後黎朝 時代 (1428~1789) 의 醫書

3-1 潘孚先의 『本草食物纂要』

이 시대 초기에는 『本草食物纂要』의 원본이 저술되었다. 전해 전해지는 책은 프랑스 極東學院의 필사본 (漢喃研究所A.1219) 으로, 입수하기 쉬운 南藥과 일상식품의 392 味를 草部·菜部~金部와 같이 분류하고 한자 이름에 베트남 식 이름을 喃字로 付記하고, 氣味·效能·解毒法 등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1429년에 편찬했다는 내용의 陳光泰 丙子科太學生·潘孚先의 識語가 책 마지막에 보인다. 潘孚先 (Phan Phu Tien) 은 陳朝·黎朝 시대의 進士로 역사·문학분야에서 업적을 쌓은 인물로[7], 潘孚先의 활동연대와 관직 등의 내용이 이 책의 識語에 적힌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본서에서는 지은이의 이름과 연도가 적히지 않은 서문이 있는데, 여러 本草書나 『本草綱目』의 내용을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본문에는 李時珍의 문장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므로, 『本草綱目』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16세기의 『本草綱目』과 潘孚先의 연대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본서는 서문과 본문이 후에 더해지고 고쳐져, 원본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다만 15세기의 『洪德國音詩集』에 보이는 오래된 喃字가 약간 사용되고 있으므로 潘孚先의 本草食物書이 기반이 되어 지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3-2 阮直의 『保嬰良方』

進士였던 阮直 (Nguyen Truc:1417~1473) [8]도, 베트남에 현존하는 最古의 小兒科書 『保嬰良方』 4卷을 편찬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極東學院의 필사본 春卷1冊 (漢喃研究所A.1462)으로, 夏·秋·冬卷의 소재는 알 수 없다. 阮直의 自序에는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自序에는 자신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中國)醫書を 연구하여 그 정수를 수집하고 발췌한 것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안쪽 봉한 부분에 「延寧乙亥年 (1455) / 保嬰良方 / 秋七月吉日奉錄」이라고 쓰여있으므로 455년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규격화된 서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필사본이 간행본일 가능성도 있다. 전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喃字은 없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小兒의 胎毒·驚風·痘疹 등과 함께, 진단과 처방을 歌·賦·解·辯·論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는 중국의 賦나 歌의 원형이 남아있는 부분과 독

자적으로 수정, 편집한 부분이 보인다. 이처럼 進士가 醫藥書를 편찬하고 있다는 점도 베트남 의학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3 黃敦和의 『活人撮要』과 鄭敦樸의 『活人撮要增補』

黃敦和 (Hoang Don Hoa) 의 저술은 黃氏17代의 가보에는 기록이 없으며 그의 출생 연도 및 사망연도 또한 알 수 없다. 그러나 莫氏와의 전쟁 (1592) 때 黎朝軍의 發熱이나 吐瀉, 전투 중 입은 상처 등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神譜』에 보이므로, 16세기의 醫家임을 알 수 있다. 黃敦和의 저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活人撮要』에는, 확실히 發熱이나 吐瀉에 대한 치료법이 실려있다. 또한 물소·소·말의 치료법도 실려 있으나, 북부 베트남에는 코끼리는 거의 살고 있지 않으므로, 코끼리에 대한 치료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책에는 입수하기 쉬운 약재에 의한 치료법이 많이 실려 있으므로, 의료의 중요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축의 치료는 이전의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黃敦和를 베트남의 수의사 및 軍醫의 시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活人撮要』을 增補한 鄭敦樸 (Trinh Don Phac:1692~1762) 은 1741년에 醫科試驗에 급제하여, 首番太醫院佐中宮이라는 직책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黃敦和과 같은 多仕村 출신이기 때문에 『活人撮要增補』 3卷을 편찬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하는 3卷은 極東學院의 필사본 (漢喃研究所A.2535) 으로, 정돈된 서식으로 볼 때 간행본을 필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卷1은 婦人門, 卷2는 小兒門, 卷3은 外科門과 六畜調治門으로, 기본적으로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베트남 의서에는 婦人·小兒의 2門 혹은 外科를 합하여 3門으로 이루어진 책이 적지 않다. 鄭敦樸이 『活人撮要』를 增補하는데 사용한 책은 『南藥神效』 외에 중국 의서 『景岳全書』 (1710년 초판), 『壽世保元』 (1615), 『醫學入門』 (1575), 『濟陰綱目』 (1620년 초판), 『本草綱目』 (1596년 초판) 등으로, 이러한 책이 太醫院에 구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중국 서적은 후에 베트남 의서에도 많이 인용되었으며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내용을 보면 病症의 治方·主治·藥味·加減·服用法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으로, 저자가 논한 것은 많지 않다. 또한 口訣을 열거한 것이 많아, 鄭敦樸의 임상경험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3-4 吳靖의 『萬方集驗』

黎朝 시기에 進士였던 吳靖 (Ngo Tinh) 도 『萬方集驗』 8을 편찬하였다. 현존하는 極東學院 필사본 (漢喃研究所A.1287/1-8) 에는 景興23年 (1762) 의 重訂序가 보인다. 여기에는 「黎朝甲辰科進士參政儒林男吳 (號鎮安 / 字文靖) 撰輯 / 黎朝進士富川縣知止社阮儒較正 / 醫院雲溪秀才阮迪抄寫」 이라는 서명이 있는데, 治方の 일람이 어려워 國內의 家傳 을 포함한 문헌 자료를 많이 찾아서 편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전부 한문으로 이루어진 病門別醫方書이다. 卷1~4는 內科의 通治部로, 瘡・痢・泄瀉・諸風・霍亂・傷寒・傷風・中寒의 各門부터 시작하여 傷寒의 瘡・痢・泄瀉를 앞 부분에 배치한 것은 베트남 의서에 공통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그 다음 卷5 에는 外科, 卷6 에는 女科・兒科, 卷7에는 上焦病, 卷8에는 中焦病・下焦病의 各門이 실려있는 등, 上中下焦病의 편성에도 독자성이 보인다.

또 각 病門에는 각각의 症候의 치료법을 열거하고 있으나 病論은 보이지 않으며 문장의 앞 혹은 뒤에 출전을 기록하였다. 醫方 중 상당수는 『本草綱目』 (혹은 『外臺祕要方』 『證類本草』) 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나, 『本草綱目』 이후의 중국 의서도 인용하고 있다.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베트남 의서가 인용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醫方 만을 편찬하는 형식은, 명나라 『普濟方』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이 책은 현존하는 베트남 유일의 敕撰醫方書라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3-5 黎有倬의 『[海上懶翁] 醫宗心領』

黎有倬 (Le Huu Trac:1724~1791) 의 有倬은 字이며, 名은 有診, 別名은 有薰, 俗名은 招七으로, 號는 海上懶翁이다. 조부 黎有名은 景治8年 (1670) 의 進士로, 관직이 憲察使에까지 이르렀던 인물이다. 부친 黎有謀도 進士로, 黎有倬은 그의 7번째 아들이다. 海陽省 唐豪縣 遼舍社 출신으로, 모친의 고향 (현재의 河靜省 香山縣 情艷社) 에서 태어나 부친의 고향에서 성장하였으며 그 후 다시 모친의 고향으로 돌아가 海上懶翁이라 호를 짓고 醫業에 종사하였다. 일반적으로는 海上懶翁 혹은 懶翁이라 불린다.

어린 시절에는 부친을 따라 수도 昇龍에서 공부를 하여, 발군의 재능과 박식함을 인정받아 명사가 되었다. 20세에는 부친의 장례식과 모친의 봉양을 위해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 학업을 중단하였다. 당시 베트남 전역은 항쟁이 자주 일어나 혼란한 상태였다. 더욱이 한발・기근으로 인해 黎有倬은 자립하기 위한 길을 찾아, 天數와 兵法에 밝은 80세의 武先生에게 陰陽學을 배웠다. 처음에는 군대에 들어갔으나, 전쟁은 서민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다섯 번째 형의 죽음을 계기로 모친이 있는 香

山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고민이 많아 쇠약해진 탓에 과거를 보지 않고 醫業에 종사하며 은거하고 있던 陳獨에게 治療를 받아, 한 달 정도 만에 병이 나았다. 이때 黎有倬이 읽은 醫藥書 중에 『馮氏錦囊祕錄』(淸·馮兆張 지음, 1702년 초판. 全8書·計59卷의 醫學全書)이 있다. 黎有倬은 醫學의 陰陽論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陳獨은 자신의 醫術 전부를 그에게 전수하였다. 1756년에는 스승을 찾아 상경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香山에 돌아와 독서를 계속하였다. 그 곳에서 醫業을 10년 이상 계속한 후,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懶翁心領』을 저술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책의 마지막 권 등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적었다.



圖 2 『[海上懶翁] 醫宗心領』自序

적. 卷3~5 「醫學求源集」: 의학 이론. 卷6 「玄牝發微集」: 治病論. 卷7 「坤化採眞集」: 醫理와 治病에 대한 論. 卷8 「導流餘韻集」: 醫論. 卷9 「運氣祕典集」: 運氣論. 卷10·11 「藥品彙要集」: 本草의 藥性論. 卷12·13 「嶺南本草集」: 南藥의 藥性論. 卷14 「外感通治集」: 外感病과 治法에 대한 論. 卷15~24 「百病機要集」(이 중 卷17·18만이 현존): 病因과 治法에 대한 論. 卷25 「醫中關鍵集」: 醫學의 중요한 점. 卷26·27 「婦道燦然集」: 婦人科. 卷28 「坐草良模集」: 産科. 卷29~32 「幼幼須知集」: 小兒科. 卷34~43 「夢中覺痘集」: 痘疹. 卷44 「麻疹準繩集」: 麻疹. 卷45 「心得神方集」: 著效方. 卷46 「效仿新方集」: 본인인 만든 처방. 卷47~49 「百家珍藏集」: 先人 名醫의 治法과 良方에 대한 論. 卷50~57 「行簡珍需集」: 常見病의 治法과 처방. 卷58~60 「醫方海會集」(이 중 卷58만이 현존): 醫方集. 卷61 「醫陽案集」: 治驗醫案. 卷62 「醫陰案集」: 不治醫案. 卷63 「傳心祕旨集(珠玉格言)」: 의료의 心得과 치료의 격언. 卷64 「問策集」: 缺. 尾卷 「上京記事集」: 昇龍에 상

이 책은 자필 원고를 바탕으로 1880~1885년에 걸쳐 『[海上懶翁] 醫宗心領』 28集66卷으로 北寧의 同人寺에서 간행되었다. 각 권 自序에서 1770년~1780년에 걸쳐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책의 총 목록에는 권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引首·首卷 「醫業神章」: 생애의 行醫 경험 등. 卷1 「內經要旨集」: 陰陽經脈등에 대한 論. 卷2 「醫家冠冕集」: 前代 名醫의 사

경했을 때의 일・唱和詩文・自傳 등.

이처럼 목록에는 首卷・尾卷 및 卷1~64 등 총 66권이 보이나, 현재 전하는 책 중에는 빠진 卷 이 많아 실제로 간행된 것은 60권 전후였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한 사람이 편찬한 醫書라는 점에서는, 베트남에서는 가장 방대한 책이라 할 수 있고 中國・日本・韓國에서도 이러한 책이 많지 않다. 또한 懶翁의 사후 100년 후에 출판된 것도 있어, 정말로 한 사람이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각 권의 自序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은 높은 수준을 보이며 首尾一貫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저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흔적은 현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본서의 공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中國醫學을 베트남화한 의학 체계를 제시하고 그 특징을 명확히 한 점. 둘째, 慧靖의 「南藥은 베트남인을 치료한다」라는 관점에서, 베트남 고유의 약재의 효용과 처방을 망라하고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한 점. 셋째, 난치병의 治驗醫案 「陽案」과 함께, 치료하지 못한 醫案 「陰案」도 기록하여 후대의 교재로 삼을 수 있게 한 점. 이 책에는 이론・치료방법, 특히 효과적인 南藥을 사용한 치료와 처방이 제시되어, 체계적인 베트남 의학이 완성되었다. 본서는 간행되지 않았을 때부터 많은 베트남 醫書에 인용되었으며 또한 일부분의 내용이나 발췌가 필사본으로 유포되기도 하는 등 그 영향이 매우 크다. 이로 볼 때 懶翁은 베트남 의학과 역사를 대표하는 醫家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3-6 阮嘉璠의 醫書

進士였던 阮嘉璠 (Nguyen Gia Phan:1749-1829) [9]도, 『胎產調經方法』 『理陰方法通錄』 『護兒方法通錄』 『療疫方法全集』 『醫家方法總錄』 등 5편의 醫書を 저술하였다.

黎朝 末期에 실권을 잡았던 鄭氏는 손이 귀했기 때문에, 進士 阮嘉璠이 3代째 계속 醫家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그에게 產前書を 편찬하도록 하여 (1777) 宮中에서 사용하였다. 阮嘉璠은 1786년에 고향에 돌아가, 鄭氏에게 제출한 책에 빠져 있는 產後에 대한 내용을 더하여, 한문으로 된 產科書 『胎產調經方法』 [10]을 저술하였다. 본서(漢喃研究所 VHv.2069)에는 임신 1개월~10개월째의 태아와 經脈의 관계, 預辨男女法・臨産用藥, 1개월~10개월째의 胎兒圖說, 調經・求嗣・結胎交合妙訣・未及三月轉女成男妙訣의 諸篇에 論과 醫方이 실려있으며, 治驗도 기록되어 있다. 인용된 中國醫書는 『濟陰綱目』 『婦人良方』 『證治準繩』 『景岳全書』 『馮氏錦囊祕錄』 『壽世保元』 『萬病回春』 등으로 당시 자주 읽힌 책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阮嘉璠은 婦人科書인 『理陰方法通錄』 4卷 (2卷 현존, 漢喃研究所A.2853) 도, 嘉隆13년 (1814) 에 한문으로 편찬하였다. 본서에는 1788년의 서문도 보이므로, 『胎產調經方法』의 증보판으로 생각되며, 中國醫書を 인용한 부분이 많다. 또 본서를 편찬할 때, 『胎產調經方法』에서 小兒科를 분리하여 『護兒方法通錄』이라 하였다. 그는 瘟疫治療의 『療疫方法全集』 2권도 1814년에 저술하였다. 본서의 필사본 (漢喃研究所A.1306) 應川伯跋 (1816) 에는, 1789년과 1814년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阮嘉璠의 治驗을 바탕으로 치료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인용한 책의 저자로는 張景岳·馮兆張·趙獻可·吳勉學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자주 이용된 중국 책에는 어떤 책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理陰方法通錄』의 自序에는 『醫家方法總錄』이라는 책도 저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4 陳朝·後黎朝時代 (1225~1789) 의 醫學展開

앞 장에서는 현존하는 陳朝·後黎朝 時代의 醫書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500년이 넘는 陳朝·後黎朝 時代의 베트남 의학의 전개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베트남의 風土와 疾病 구조·체질에 대응하여 의학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最古의 베트남 醫書인 14세기의 『醫學要解集註遺篇』에서는,



外感病의 熱證과 寒證을 치료하기 위해 黨扣湯과 故原湯을 創方하였다. 급성 질환의 대책으로 瘧·痢·泄瀉를 傷寒·中風보다 중시하는 점은 베트남 醫書에 공통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醫宗心領』 권14 外感通治集에는 傷寒과 베트남의 風土·체질을 논하고, 베트남의 傷寒에 麻黃·桂枝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같은 책에서는 高溫多濕의 流汗으로 잃어버린 陰液도 동시에 보충하는 補陰兼用의 新創方이 다수 실려 있다.

圖 3 慧靖의 像

이와 관련하여 慧靖이 제창한 醫方에 南藥을 응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여러 醫書에 크게 받아들여졌다. 즉 두 번째 특징으로는 베트남 醫藥學 분야의 확대를 들 수 있다.

南藥의 개발과 응용은 베트남 고유 식물의 약효를 알 수 있게 하였으며, 독자의 南藥本草·食物本草가 생겨날 수 있게 하였다. 임상에서는 風土病이라고 할 수 있는 瘧·溫疫·瘴氣의 치료가 발전하였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치료도 중시하는 의서가

저술되었다. 더욱이 전쟁이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軍醫學이 생겨났고, 궁중에서는 자손을 잇기 위한 대책으로 아들을 얻고 보육하기 위한 남녀의 強精·방중술·婦人科·小兒科·痘疹 등의 분야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치방도 집대성한 醫方書도 편찬되게 된다.

세 번째로 慧靖의 『南藥國語賦』 『直解指南藥性賦』에서 시작된 歌賦형식에 의한 論述이 보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歌賦형식의 의서는 중국 元代부터 퍼지고 明代에 보급되었는데 그 영향은 조선·일본에까지 미쳤다. 그러나 대다수의 醫藥書에 이 형식이 채용된 것은 베트남의 큰 특징으로, 暗唱과 口傳으로 의학을 전수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의학을 공개하는 작용을 하는 상업 출판된 의서가 19세기 말 까지 출현하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歌賦형식이 널리 채용된 배경에는 그 사회경제적 상황 및 口傳문화라는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닐까?

네 번째로는 계속 필사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의서 중 많은 수가 進士 또는 進士의 일족·진사와 관련된 인물에 의해 편찬되고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물론 과거제도가 그 배경이라 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과거가 시행되었던 중국·조선에서는 進士가 저술한 의서가 베트남만큼 보급되고 전승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베트남 고유의 儒와 醫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이 저술에 인용한 중국의서는, 『本草綱目』 52卷 (1596), 『馮氏錦囊祕錄』 59卷 (1702), 『景岳全書』 64卷 (1710), 『證治準繩』 44卷 (1760) 등 모두 대부분 고가의 서적으로, 일반 醫家가 보통 이용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양이 많지 않은 『醫學入門』 8卷 (1575), 『萬病回春』 8卷 (1587), 『壽世保元』 10卷 (1615) 등의 서적도, 저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되고 있다. 이 점도 일반 醫家

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進士 등이 저술한 醫書가 계속해서 전승되고 인용되어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黎有倬의 『[海上懶翁] 醫宗心領』 28集 全 66卷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이 책에는 앞에서 기술한 베트남 醫藥學의 모든 특징이 망라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圖 4 海上懶翁(黎有倬)을 제사 지내는 醫廟(하노이)

러한 특징이 계통적·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베트남의학의 독자적인 체계가 구체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베트남 역사에서도 黎朝時代의 海上懶翁 (黎有倬) 이 가장 뛰어난 醫人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내용이 방대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어, 지금의 베트남 동양 의학계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문헌 및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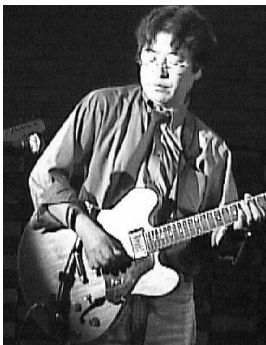
- [1] Hoang Bao Chau, Pho Duc Thuc and Huu Ngoc, Overview of Vietnamese traditional Medicine, VIETNAMESE TRADITIONAL MEDICINE (Second Edition) , p.1-28, The Gioi Publishers, Hanoi, 1999.
- [2] LÂM Giang, *Phần thứ nhất: Thư tịch y dược cổ truyền Việt Nam thực trạng* (베트남 전통의학의 실정) , LÂM Giang主編, TÌM HIỂU THƯ TỊCH Y DƯỢC CỔ TRUYỀN VIỆT NAM (베트남傳統醫藥書籍考) , p.13-190, Nhà xuất bản Khoa học xã hội, Hanoi, 2009. 본 논문은 大西和彦에게 의뢰한 일본어 초벌번역에서 인용하였다.
- [3] MAYANAGI Makoto, Nghiên cứu so sánh định lượng thư tịch y học cổ truyền các nước khu vực đồng văn [Quantitative Comparative Studies on Traditional Medical Treatises in Countries Using the Same Language (i.e., Classical Chinese)] , Mục lục Tạp chí Hán Nôm [漢喃雜誌] 6 (97) , 2009, p.10-29, 2010.
- [4] 후에 (Hue) 에 소장되어 있던 古典籍은, 베트남 전쟁 시의 공방전 (1968) 으로 일부가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후에는 阮朝大臣 張登桂의 자손인 노부인의 저택에 醫藥書籍을 보관하는 방이 있다고 하므로, 阮朝 太醫院의 서적이 전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 [5] 朱文安은 名은 朱安이라 한다. 하노이 교외 출신으로, 1292년 8월 25일 태어나, 1370년 11월 28일에 7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과거에 합격한 후, 관직에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학교를 세워 많은 학생을 지도했다고 한다. 또한 陳明宗 (1314~1329) 王의 황태자를 위해 國子監의 교사를 잠깐 맡기도 하였다.
- [6] 慧靖은 10~17세기에 몇 사람의 승려가 물려받았던 僧名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15세기 초엽 의학에 통달했던 洪義 라고 하는 설도 있다.
- [7] 潘孚先의 字는 信臣, 號를 默軒이라 하였으며, 하노이 교외에 있는 慈廉縣 東顎社 출신이다.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陳順宗 시기의 丙巳年

(1396) 太學生科에 급제하여, 順天2年 (1429) 明經科에 다시 급제하였다. 관직은 國史院 同修國史에서 天長安撫使, 후에는 國子監 博士까지 이르렀다. 그는 陳仁宗 (재위1225~1258) 부터 陳重光 (재위1409~1413) 까지의 史書『大越史記續編』과 陳朝 부터 黎朝까지의 119人의 詩文 624編을 포함한 베트남 최초의 문학 선집『越音詩集』 6卷을 편찬하였다.

[8] 阮直의 字는 公挺, 號를 訐寥이라 하였으며, 河西 (현재 하노이시 서부) 靑威縣 貝溪社 사람이다. 18세에 鄉貢에 합격하여, 大寶3年 (1442) 에 狀元에 합격하였다. 黎仁宗 時代 (1443~1459) 의 太和 年間 (1443~1453) 에 翰林院 侍講을 맡았다. 다른 저작으로는 『訐寥集』 『愚閑集』 이 있다.

[9] 阮嘉璠은 다른 이름으로는 阮世歷 이라고 하며, 號를 養庵 혹은 慈安이라 하였으며, 景興10年 (1749) 에 慈廉縣 (현재의 하노이) 安壟村에서 태어났다. 26세 되던 景興36年, 과거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고, 山西道監察御史事에 임명되었다.

[10] 현존하는 책에는 胎前調經方法・胎前調養方法・胎產調理方法・胎產調養方法이라는 書名도 보이나 모두 篇名에서 유래한 것을 오인한 것이다. 정확한 書名은 『胎產調經方法』 이다.



眞柳誠

1950년생. 東京理科大学 藥學部 졸업. 北京中醫學院 유학 후, 昭和大學醫學部에서 醫學 博士 취득. 北里研究所附屬 東洋醫學總合研究所 에서 근무한 후 현재는 茨城大學大學院 人文科學研究科 교수. 日本醫史學會 이사・中國出土資料學會 이사・東亞醫學協會 이사. 編譯書 『和刻漢籍醫書集成』 『小品方・黃帝內經明堂古鈔本殘卷』 『日本

版中國本草圖錄』 『善本翻刻傷寒論・金匱要略』, 연구 논문・조사 보고서 222편 등.



한국어 번역:조정은

1981년생. 경희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동양사전공 석사.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연구실 연구조교로 근무. 현재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전공은 중국 청대 사회문화사. 논문: 「崇拜와 禁止—清代福建의 五瘟神信仰과 國家權力」, 『명청사연구』, 2006.